

되는 일, 안 되는 일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제정한 도서관인윤리선언에는 많은 선언적 의미와 함께 도서관이, 또는 도서관인이 해야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들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사서는 도서관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일을 모르는 것 같다.

이경구_한국도서관협회

세상일에는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분법적 사고만으로 모든 것을 단정 짓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 많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세상 돌아가는 사정이 복잡해지고 사람의 생각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어떤 일은 되는 일이 안 되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안 되는 일이 되는 일로 바뀌기도 한다.

윤리적 문제·사상적 문제 그리고 자연적 현상이나 사회적 이슈들이 모두 그렇다. “안되면 되게 하라”는 말이 있다. 혁명적 사고와 적극적 행동 패턴 범주에 속하는 말일 것이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의 어려웠던 시절에 귀감처럼 쓰였던 말이다. 그래서 그러한 사고를 모토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말속에는 역지가 섞여 있다. 순리도 아니고 무리수로 보인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우리는 많을 것을 잃었다.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모든 측면에서 얻고 잃은 두 얼굴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

도서관 현장에서 가장 안 되는 일은 도서관의 공부방 화이다. 도서관의 공부방 화 문제는 우리나라에 도서관이 정착된 50여 년 전부터 오르내리던 말이다.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책도 별로 없으면서 찾아보아야 할 콘텐츠도 거의 없으면서 그저 사서들은 신념처럼 되뇌어 왔다. 지금처럼 책이 많아져도 콘텐츠가 다양하고 풍부해져도(물론 책도 콘텐츠의 일부이겠으나) 어쩌면 그렇게 이용자가 찾는 것은 없는 것이 많는지 모르겠다. 도서관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책·콘텐츠가 세상에 깔려있기 때문이겠지만 말이다.

일부 언론의 우려와 이용자의 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탈 공부방 화를 선언한 모 도서관은 각고의 노력 끝에 지금은 완전치는 않지만 자료만을 이용하는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잠재적 이용자(공부방을 선호하는)를 잃어 이용자 수가 감소하는 역기능을 겪기도 하였다. 이처럼 상대적 가치가 우월함이 분명한데도 역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관한한 도서관에서는 반드시 헤쳐 나가야 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제정한 도서관인윤리선언에는 많은 선언적 의미와 함께 도서관이, 또는 도서관인이 해야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들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사서는 도서관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일을 모르는 것 같다. 직업인으로서의 전문 사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용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실천보다 비판만 앞서지는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지 등등...

이제는 도서관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되는 일은 확실히 되고 안 되는 일은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 그리고 도서관 문화의 보다 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결단력과 실천력을 갖추어나가야 한다.

